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.



검찰  
PROSECUTION SERVICE

## 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담당자 인권보호관 최현철  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## 보도자료

2024. 11. 6.(수)

### 캄보디아에 주식리딩방을 차리고 29억 원 편취한 범단 조직원 14명 기소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(부장검사 조재철)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해외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,
  -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하며 내국인 38명으로부터 약 29억 원을 편취한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사기, 범죄단체 가입·활동,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'24. 9. 13. ~ '24. 11. 1. 기소하였습니다(12명 구속기소).
- 검찰은 송치 후 계좌추적, 포렌식 자료 분석,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,
  - **(범행의 구조·실체)** ①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SNS 등을 통해 **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**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접근, **가짜 투자사이트** 가입 및 입금을 유도하는 등 사실상 **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사기 범행**으로, ②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수 개의 **점조직**을 총괄하고, 각 점조직 별로 '홍보팀' '영업팀' '기술팀' '세탁팀' 등 하위조직을 두는 **조직범죄**임을 확인해 범죄단체로 기소하였으며, ③ 무허가로 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 **금융범죄**는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적극 적용해 기소하였고,
  - **(범죄수익 박탈)** 조직원들이 **가상자산**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**범죄수익을 세탁**해온 사실도 확인하여 범죄수익 입금 계좌를 **추징 보전**, 자금세탁 행위를 **범죄수익은닉죄**로 기소하는 등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.
-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**자본시장에 기생하는 조직적 사기범행**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 1

##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약

순번	피고인	역할	공소사실	처분
1	A (25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장	<b>【사기, 범죄단체가입·활동, 자본시장법위반】</b> ○ '24. 1. ~ '24. 7.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성명불상 중국인 총책이 이른바 '주식 리딩방 사기'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 후 '영업팀장', '영업팀원'으로 활동하면서, 해외 유명 투자 그룹 '○○○'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'종목 및 매매시점 추천 등으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'(리딩)며 피해자들을 기망, 자체 개발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2,439,030,038원 편취  <b>【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】</b> ○ '24. 3. ~ '24. 6.경 위 범죄단체로부터 보수를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업자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 등을 통해 지급받은 것처럼 원화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2,204,300원의 범죄수익 은닉	구속 기소 (9. 13.)
2	B (24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원		
3	C (38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원		
4	D (38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원	<b>【사기, 범죄단체가입·활동, 자본시장법위반】</b> ○ '24. 3. ~ '24. 5.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 후 '영업팀원'으로 활동하면서,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815,071,109원 편취	구속 기소 (9. 20.)
5	E (36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원		
6	F (24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원		
7	G (25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모집책	<b>【사기, 범죄단체가입·활동, 자본시장법위반】</b> ○ '24. 1. ~ '24. 7.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 후 '모집책'으로 활동하면서,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2,439,030,038원 편취	구속 기소 (9. 27.)

순번	피고인	역할	공소사실	처분
8	H (23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원	<b>【사기, 범죄단체가입·활동, 자본시장법위반】</b> ○ '24. 1. ~ '24. 7.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 후 '영업 팀원'으로 활동하면서,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1,951,796,653원 편취	구속 기소 (10. 22.)
9	I (25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원		
10	J (25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원		
11	K (25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원	<b>【사기, 범죄단체가입·활동, 자본시장법위반】</b> ○ '24. 1. ~ '24. 7.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 후 '영업 팀원'으로 활동하면서,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16,689,564원 편취	구속 기소 (10. 31.)
12	L (26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원		불구속 기소 (10. 31.)
13	M (38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모집책	<b>【사기, 범죄단체가입·활동, 자본시장법위반】</b> ○ '24. 1. ~ '24. 7.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 후 '영업 팀장', '모집책'으로 활동하면서,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2,930,166,948원 편취	구속 기소 (11. 1.)
14	N (29세)	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영업팀장		불구속 기소 (11. 1.)

## 2 수사 경과

- '24. 8. 28.~ 경찰, 구속 송치 등
  - ※ 서울양천경찰서에서 별건 수사 중 본건 범죄단체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집중 수사하여 국내 체류 중으로 확인된 조직원 12명을 순차 검거 후 구속송치, 2명 불구속송치
- '24. 9. 9.~ 검찰, 자금세탁책 사용 계좌들에 대한 계좌추적
- '24. 9. 13.~27. 검찰, 영업팀장 등 7명(A~G) 구속 기소 [1~3차]
- '24. 10. 22.~11. 1. 검찰, 영업팀장 등 7명(H~N) 구속, 불구속 기소 [4~6차]
  - ※ 계좌추적, 포렌식분석 등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총 9건 청구

## 최근 기승을 부리는 '국제투자자문사 사칭 조직적 리딩방 사기' 범행 구조 규명

### ① 진화된 보이스피싱 유사 범행

#### ●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사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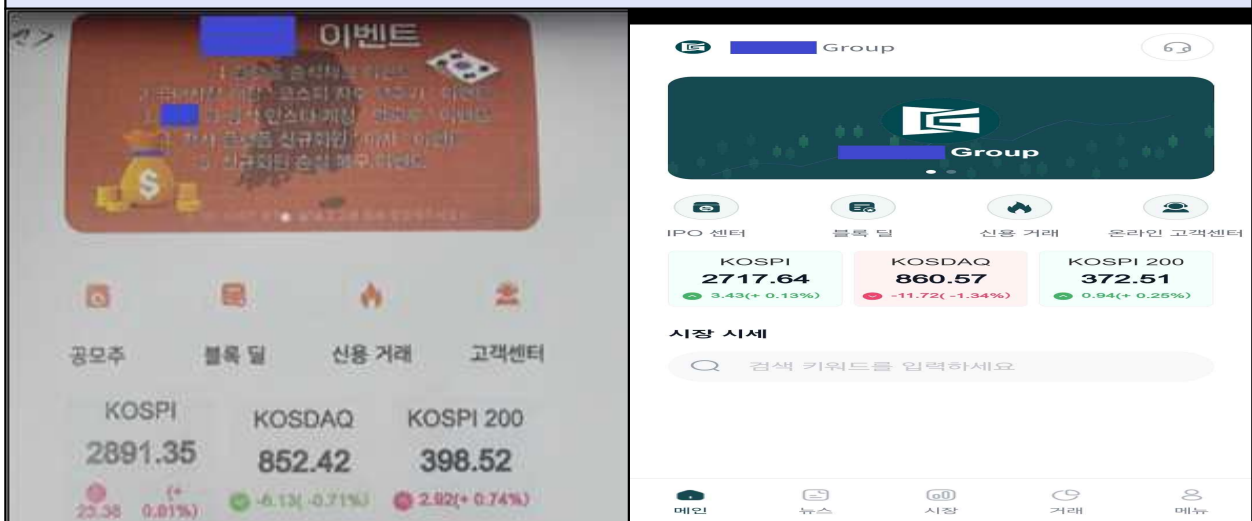
-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에 '급등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' 등 배너 광고를 하고, 광고상의 링크를 클릭한 불특정 다수에게 SNS 등을 통해 접근한 후, ○○○ 그룹·○○인베스트 등 국내에도 지명도가 높은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하고, 투자 종목 추천 등 상담을 해주며 환심을 샀습니다.

#### ● 가짜 주식·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이용

-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쌓이면 '고수익 주식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'는 등으로 말하며,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, '종목과 타이밍을 알려줄 테니(이른바 '리딩'), 그에 따라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'고 속여 투자금을 송금 받았습니다.

※ 마치 정상적 주식거래 HTS(Home Trading System)와 유사하게, 돈을 입금하면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에 표시되나 수사 결과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

### 가짜 투자 사이트 화면



## ● 이른바 '돼지도살' 수법

- 피고인들은 최초 투자금을 입금받고 나면 또 다시 '점유율을 높여야 한다.' '블록딜로 주식을 대량 매수할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.'는 등 취지로 말하며 계속해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, 일순간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.

※ 돼지를 천천히 살찌운 후 도살하듯이,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점차 늘린 후 일거에 수익을 실현하는 위와 같은 사기 수법을 '돼지도살 수법'(Pig Butchering Scam)이라고 함

## ● 누구나 피해 위험에 노출

-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피해자도 다수 존재하고, 직장인 · 공무원 · 학원강사 · 종교인 · 자영업자 ·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의 피해자들이 수백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.

※ 특히, 일반 시민들이 투자 광고를 접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고, 인허가 등 절차를 거친 업체인지를 유심히 확인하고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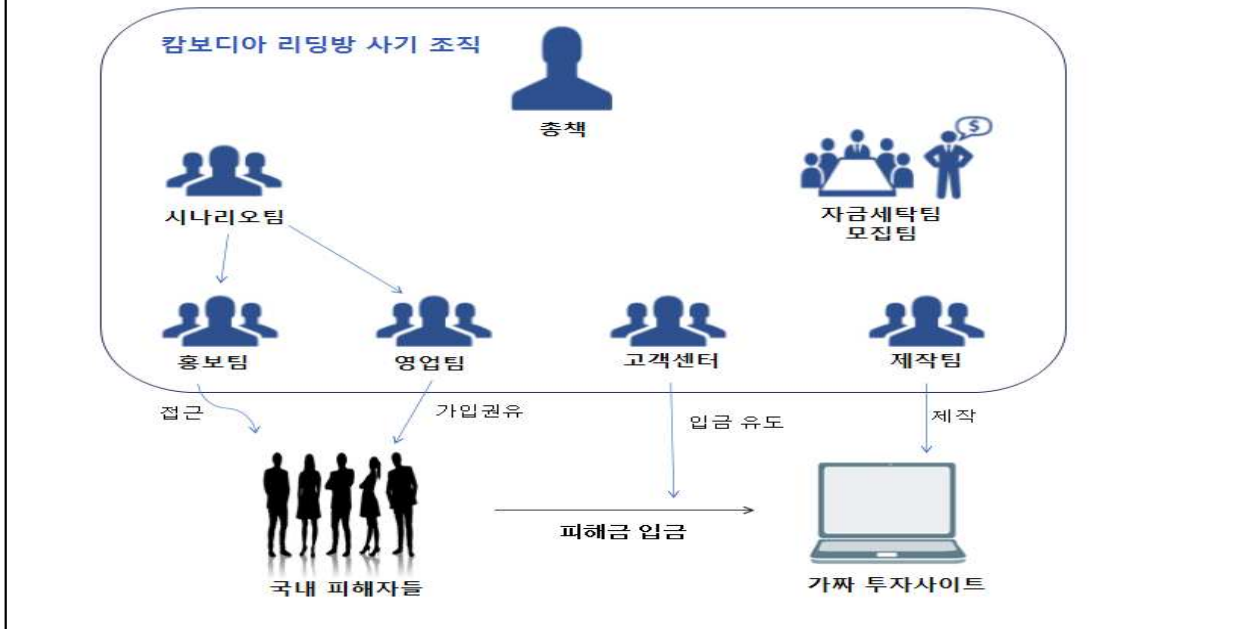
⇒ 본건은, ▲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최소한도의 실체도 없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유사 범행이라는 점에서 여타 투자사기 사건과 차이가 있고, ▲ 전형적 보이스피싱 범행이 피해자의 '공포심'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의 '신뢰'를 이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음

## ② 국제적 규모의 조직범죄

### ● 초국경적(cross-border) 범죄조직

- 본건은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수 개의 점조직을 총괄하고, 각 점조직별로 ▲ '홍보팀'은 인터넷 포털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, ▲ '영업팀'은 SNS 등을 통해 신뢰 형성 후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 유도, ▲ '시나리오팀'은 홍보팀과 영업팀이 사용할 대본 작성, ▲ '기술팀'은 가짜 투자사이트 제작, ▲ '고객센터'는 입금 유도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,
- 그 밖에 '자금세탁팀' '통역팀' '모집팀'까지 별도로 두는 등 고도로 분업화 · 전문화된 조직범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## 범행 조직도



### ● 이른바 '제4세대형' 조직범죄

- 검찰은 이 사건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구조, 역할분담 및 지휘통솔 체계 등을 면밀히 보완 수사한 결과, **형법상 범죄단체**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,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였습니다.

\* 조직범죄는 속칭 '조폭'과 같은 전형적인 1세대형에서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2세대형,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 진출 영역인 3세대형까지 변화되어 왔는데, 제4세대형은 2010년대 이후 등장한 형태로 이 사건과 같이 '형태와 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화된 범죄집단'(보이스피싱, 온라인 도박, 불법사금융, 전세사기 조직 등)으로 정의될 수 있고[2023. 12. 1.자 대검찰청 보도자료 참조],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해당

### ● 유기적 협력수사

- 검찰은 '24. 8. 말경 최초 구속 송치(3명) 접수 직후 전담검사를 지정,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나머지 조직원들 영장 검토 등 후속 수사 신속하게 진행,
- 경찰(양천경찰서)은 '24. 8. ~ 10. 집중 수사를 통해 국내 체류 조직원을 대부분 검거하여, 14명을 구속(12명) 및 불구속(2명) 송치하였습니다.

## 범죄수익은 금액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

### ●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 세탁

- 본건 조직이 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팀까지 별도 운영했던 점에 착안,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계좌추적을 실시한 결과, 피고인들이 가상 자산으로 보수를 받고 환전업자를 통해 마치 개인 간 정상적 금전거래로 가장해 현금을 송금 받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### ●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

-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보수를 받는데 사용한 계좌들을 추적해 모두 추징보전 조치하였고, 일련의 자금세탁 행위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적극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.

## 4

### 향후 계획

-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경찰과 협력하여 이 사건 해외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☑